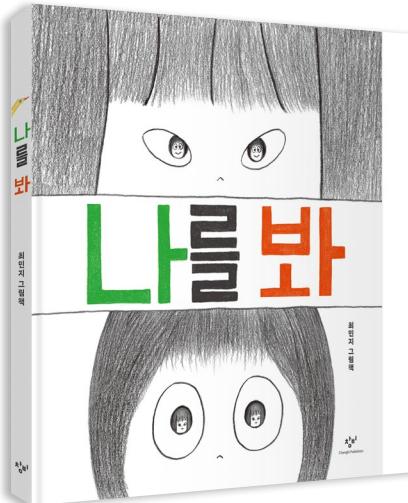


5~6학년

구성 김수현

서울 정수초등학교 교사

자세히 보면 더 사랑스러운 내 친구!
고정관념을 깨는 다정다감 친구 관찰기



나를 봐

최민지 그림책 | 창비 | 20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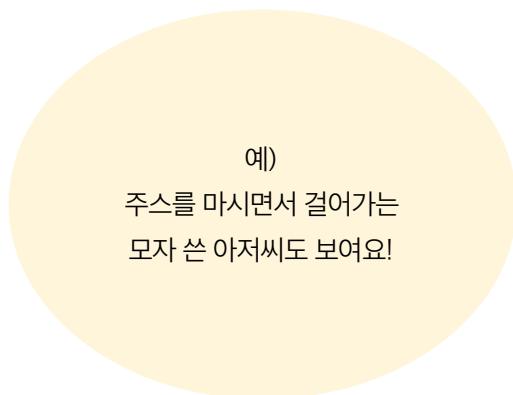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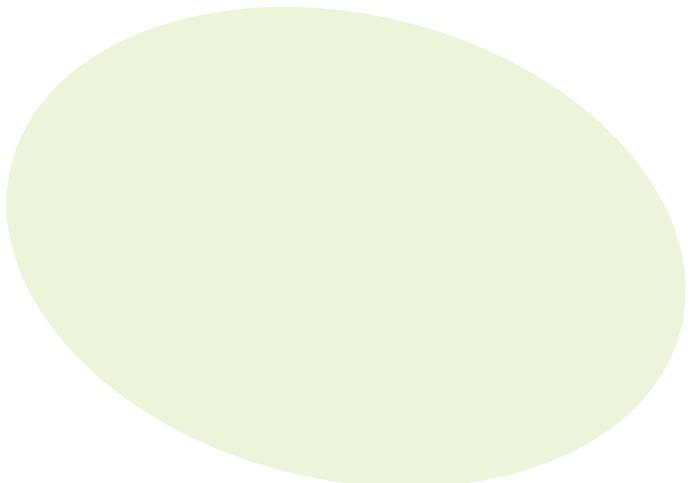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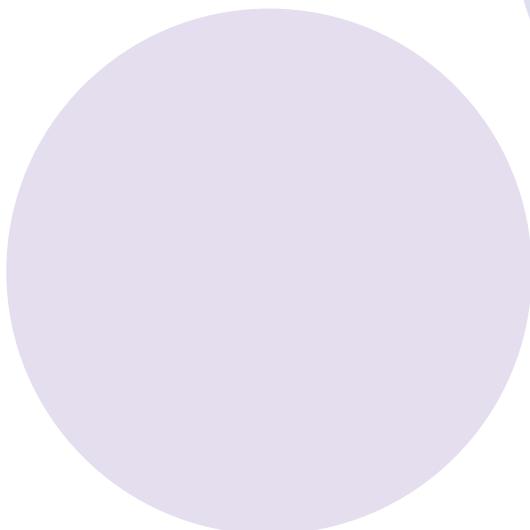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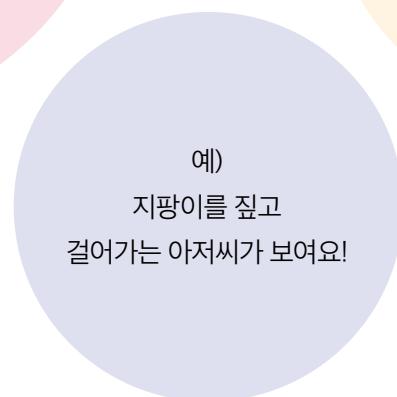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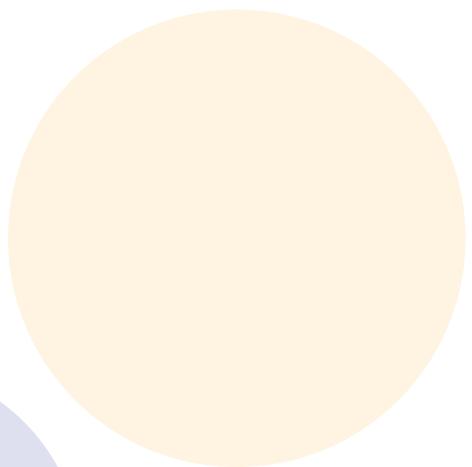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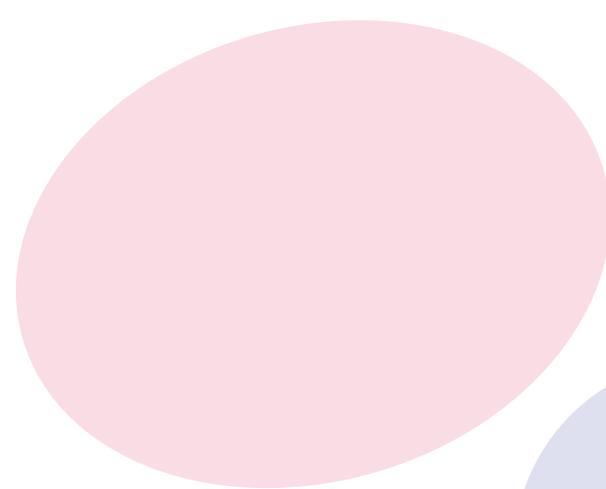
아이들은 물론 평단과 어른 독자 모두를 사로잡아 온 최민지 작가의 그림책이다. 관계에 대한 철학적인 질문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작가의 더욱 깊어진 작품 세계를 만날 수 있다.

이 책은 낯선 친구를 만나 친구의 요모조모를 궁금해하며 우정을 키워 가는 마법 같은 시간을 생생하게 그린다. 어린이의 시선에서 서로 연대하는 삶의 소중함을 사랑스럽게 담는 동시에 나와 타인, 나아가 세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곰곰이 곱씹게 한다.『나를 봐』는 ‘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가’ ‘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데 서투른가’와 같은 묵직한 질문에 작가의 통찰이 담긴 답변을 들려준다.

활동지 1

눈을 크게 뜨고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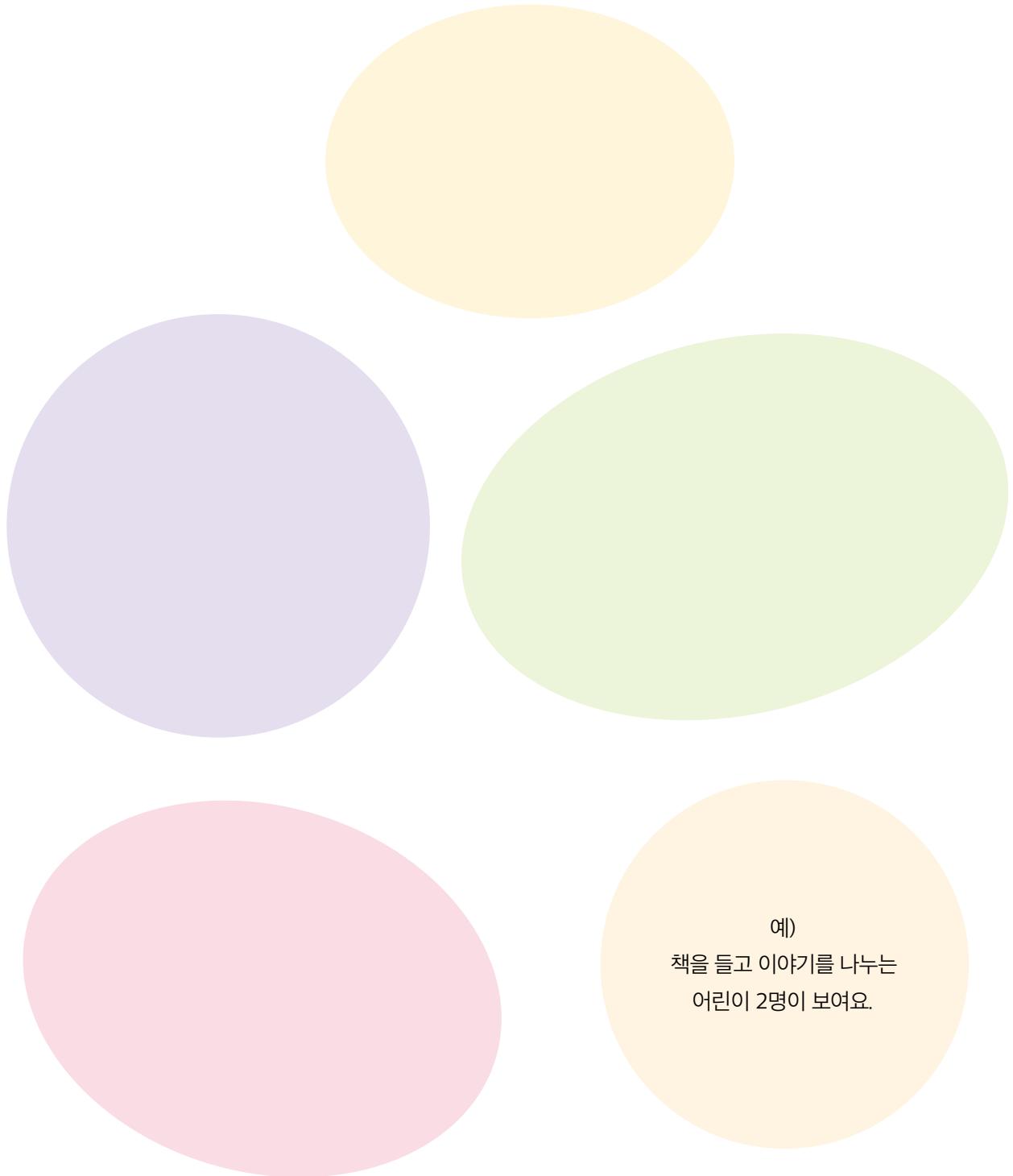
앞면지를 펼쳐 보세요. 모두 41명의 사람들이 있어요.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눈에 띄나요?



활동지 1

눈을 크게 뜨고!

뒷면지를 펼쳐 보세요. 모두 47명의 사람들이 있어요.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눈에 띄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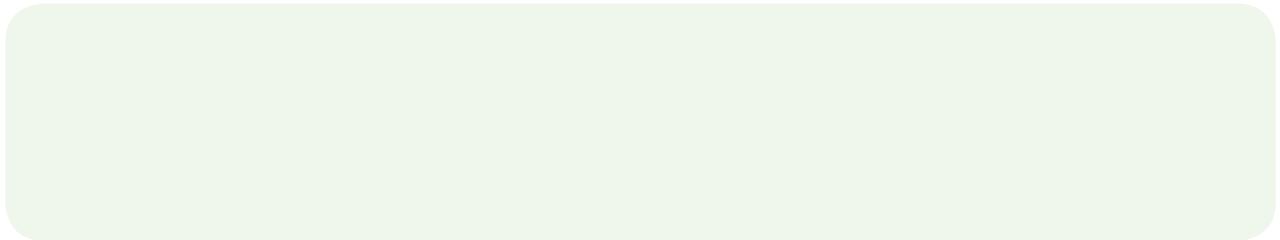


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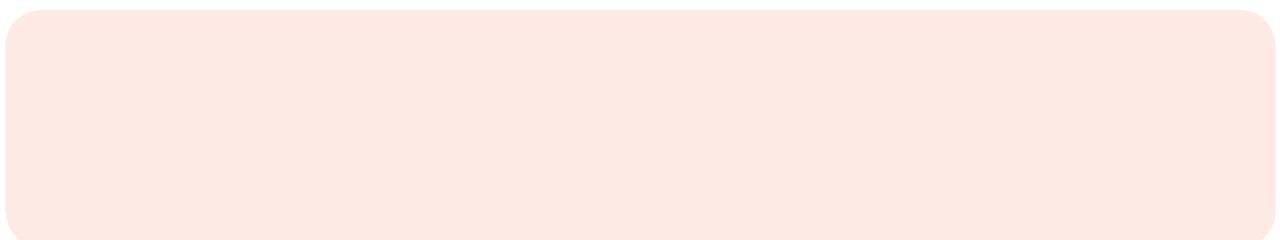
책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는
어린이 2명이 보여요.

나라면 어땠을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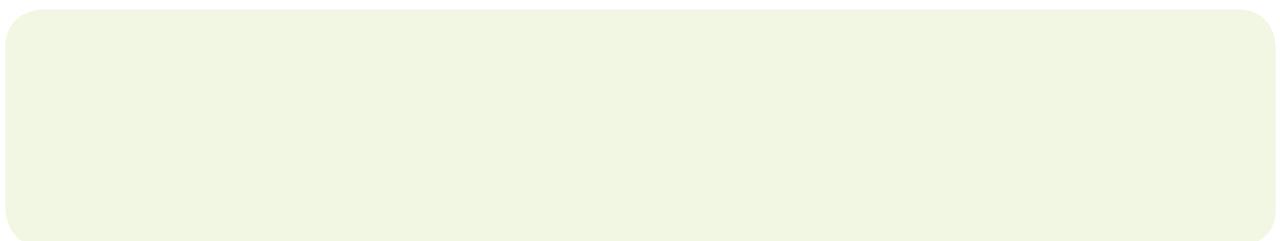
Q1. 멀리서 본 동물원의 코끼리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. 그런데 코끼리를 가까이에서 보니 표정이 슬퍼 보여요. 내가 만약 코끼리라면 어떤 기분일까요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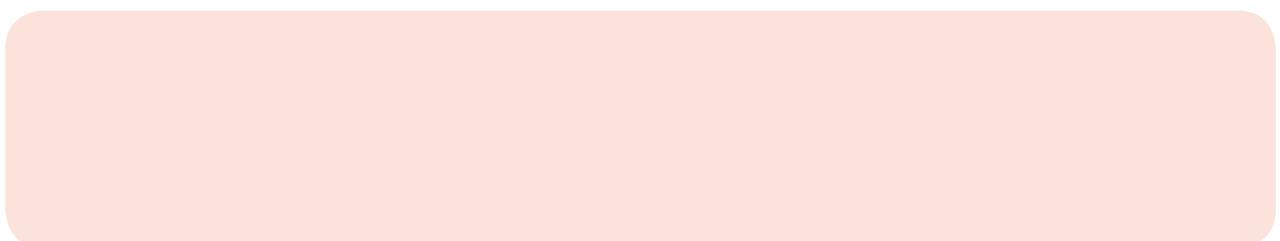
Q2. 고양이를 구하다가 늦었다는 사실을 믿어 주지 않는 선생님. 내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?



Q3. 친구가 학교에 결석을 했어요. 친구의 빈 책상을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?



Q4. 결석한 친구의 집을 찾아간 주인공. 내가 친구라면 어땠을까요?



Q5. “우리 내일도 보자!”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친구가 나에게도 있나요?
그 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아래를 채워 봅시다.

“



야, 우리 내일도 보자!”

활동지 3

내가 보는 나, 내가 보는 친구

아래에는 사람의 성향을 나타내는 여러 말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‘나’를 나타내는 표현을 5~10개 찾아 동그라미합니다. (비밀 유지 필수!)

잘 웃는 준비물을 잘 잊는 의리가 있는 자상하게 대하는 계획성 있는
말이 적고 침착한 진지한 책임감 있는 유머가 있는 발표를 잘하는 자신감 있는
꾸준히 노력하는 글씨를 잘 쓰는 상상력이 풍부한 단정한 약속을 잘 지키는
약속을 잘 어기는 손재주가 좋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
편식하는 골고루 먹는 종종 지각하는 주변이 어지러운 준비물을 잘 챙기는
자세가 바른 청소를 잘 하는 딱지를 잘 치는 카드를 잘 하는 손을 잘 씻는
양치를 잘 하는 책을 잘 읽는 책을 잘 안 읽는 과장이 심한 수줍음이 많은
쓰레기를 잘 버리는 귀속말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표정이 밝은 잘 투덜대는
악기를 잘 다루는 요요를 잘하는 글을 잘 쓰는 운동을 잘하는 말이 빠른
말이 느린 장난을 잘 치는 게임을 잘 하는 인사를 잘하는 부지런한

이번에는 이 중에서 ‘내 짹꿍()’을 나타내는 표현을 5~10개 찾아 동그라미합니다.
(역시 비밀 유지 필수!)

잘 웃는 준비물을 잘 잊는 의리가 있는 자상하게 대하는 계획성 있는
말이 적고 침착한 진지한 책임감 있는 유머가 있는 발표를 잘하는 자신감 있는
꾸준히 노력하는 글씨를 잘 쓰는 상상력이 풍부한 단정한 약속을 잘 지키는
약속을 잘 어기는 손재주가 좋은 정리정돈을 잘 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
편식하는 골고루 먹는 종종 지각하는 주변이 어지러운 준비물을 잘 챙기는
자세가 바른 청소를 잘 하는 딱지를 잘 치는 카드를 잘 하는 손을 잘 씻는
양치를 잘 하는 책을 잘 읽는 책을 잘 안 읽는 과장이 심한 수줍음이 많은
쓰레기를 잘 버리는 귀속말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표정이 밝은 잘 투덜대는
악기를 잘 다루는 요요를 잘하는 글을 잘 쓰는 운동을 잘하는 말이 빠른
말이 느린 장난을 잘 치는 게임을 잘 하는 인사를 잘하는 부지런한

‘친구가 바라보는 나’와 ‘내가 바라보는 나’는 비슷한가요? 느낀 점을 간단히 적어 봅시다.